

시베리아 자판기 시장 동향

시장선점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로 평가

KOTRA 제공

최근 러시아 경제의 정상화 및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문제파악 및 해결을 위한 사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지금이 아무도 관심 없는 시베리아 자판기시장 선점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판단된다

시베리아 자판기 설치 현황

◆ 시베리아는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 비해 발전 속도나 유행 등에 있어 약 3년 정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

- 즉, 시베리아는 서유럽에 위치한 모스크바가 자판기 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공항이나 일부 쇼핑몰, 슈퍼마켓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.

- 당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, 인

구 170만의 노보시비르스크시에 설치된 자판기 숫자는 약 300대 내외로 추산되고 있음.

- 상기 추정 숫자 또한 네슬레나 코카콜라 등에서 판촉,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임에 따라 자판기 무풍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님.

서부러시아 자판기 시장 동향

◆ 러시아는 자판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모스크바시에 우후죽순



으로 건설되고 있는 신건물 및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며 자판기 설치가 대중화돼 가고 있는 추세임.

- 자판기의 종류로는 캔 음료를 비롯 커피자판기가 대부분이며, 자판기 보급대수가 인구대비 서구의 7~8%도 안돼 향후 최고의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부상 중에 있음.

- ◆ 모스크바에만 설치돼 있는 자판기수는 약 1만대로 추산되고 있으며, 그중 약 50% 이상이 코카콜라나 네슬레사, 펩시콜라 사 등 음료업체 대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자판기 시장 전망

- ◆ 전문가들에 의견에 따르면, 러시아 자판기 시장 잠재력은 매우 커 향후 5년간 자판기 판매 금액만 연간 US\$ 2억, 자판기를 통한 음료수 판매액은 연간 US\$ 12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
- ◆ 시베리아 지역의 경우, 추운 겨울이 길고 건물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판기시장의 확대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임.
 - 시베리아인들은 자판기를 통해 커피를 뽑아 마시는 것에 대해 아주 낮설게 생각하고 있으며, 심지어는 자판기를 신기한 기계로 보는 측면이 강한 편임.
 - 이는 아직 비즈니스맨들이 유행이나 트렌드를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며, 대학 및 상가,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시장확대 노력을

기울인다면 시베리아 최고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임.

무역관 의견

- ◆ 2005년도 한국산 자판기 수입은 전체수입의 약 40% 차지할 정도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한국에서 기계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1~2개사로 한정돼 있어 자판기 단순 수입판매를 위한 비즈니스는 권할만 하지 않음.
 - 현지에서 소규모로 자판기계 수입을 통해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1~2개씩 생겨나고 있으나, 규모면에서 매우 작아 비즈니스로 성공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임.
- ◆ 따라서, 한국에서 러시아 환경에 맞는 자판기 공급을 통해 시베리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음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를 대규모로 설치, 운영하는 것이 유행 창조 및 시장선점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
 - 단지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걸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물 파손·파괴, 도난 사고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러시아에는 자판기사업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, 최근 러시아 경제의 정상화 및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문제파악 및 해결을 위한 사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지금이 아무도 관심 없는 시베리아 자판기시장 선점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판단됨.